조선

주체113
(2024)
9
(820)

차 례

특별소식

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지방의 획기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1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4 ‖ 강군현대화위업의 확고한 승세를 과시하는 절대병기들의 출정식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 성대히 거행

2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무인기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2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고있는 240㎜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보시였다

2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큰물피해지역 수재민들을 구출하는데서 특출한 무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비행부대를 축하방문하시였다

34 ‖ 평안북도피해복구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 진행

3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48 ‖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지역 주민들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숙소에 나오시여 수재민들을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5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25려관을 찾으시고 수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5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여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6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9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특 집

62 ‖ 건국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오늘의 조선

68 ‖ 청년절 뜻깊게 경축

70 ‖ 묘향산의료기구공장

74 ‖ 친선과 우정으로 이어진 야영의 나날들

표 지: 수재민들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재해복구와 관련한 당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뒤표지: 평안북도피해복구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대원들
편 집: 변일진, 김규성, 조철주, 승 룡

10

14

34

68

74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지방의 획기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24일과 25일 여러 지방공업공장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배치 및 원림계획도를 보시면서 지휘관들로부터 건설진척정형을 보고받으시고 공사현장들을 돌아보시며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발전의 새시대를 알리는 착공의 발파단추를 누르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공장들이 자태를 드러냈다고, 전반적으로 총공사량의 80%계선을 다 넘어섰다고 하는데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설비들의 가동에 지장이 없고 로동생산능률을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공정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이 되였는가, 벽체들의 보온대책은 철저히 세워졌는가, 벽체타일붙이기가 손색없이 되였는가를 세심히 살펴보시면서 시공의 질적수준을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건설을 다그쳐 끝내겠다는 조바심에만 사로잡혀 질제고라는 정책적요구를 홀시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당이 인민들과 약속하고 인민군대가 인민들에게 선물하겠다고 결의한 지방공업공장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장지휘관들과 건설감독기관들의 요구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일솜씨도 오래도록 보아주시면서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해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도, 시, 군당조직들과 각급 인민위원회들에서 공장건설이 완공되는 즉시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그 혜택을 볼수 있게 원료기지조성과 기능공양성을 비롯한 준비사업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착실히 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력히 실행해나감에 있어서 현재 추진되고있는 지방공업공장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량곡관리시설건설을 병행시킴으로써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갈데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당중앙의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 군들의 농촌건설로력으로는 살림집들을 모두 개변시키자고만 해도 아름찬 일이므로 여력이 없다고, 그렇다고 하여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사업들을 외면한다면 지방진흥이라는 꿈이 한갖 빈구호로 끝날수 있다고 강조하시고 우리 당은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지지자, 관철자이며 새시대의 문명의 개척자이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우리 군대를 믿고 용단을 내렸다고 하시면서 지방공업공장건설에 동원된 군부대들에서 로력편성과 력량조절을 잘하고 공사일정조직을 짜고들어 새롭게 부과된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보다 방대해진 지방발전 10년목표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들과 구체적인 수행방도들을 해당 부문 책임일군들이 깊이 연구하여 12월전원회의에서 토의심의 및 결정채택하고 년차별로 실속있게 집행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임무는 방대하고 조건은 비록 어렵지만 좀더 품을 들이고 보다 분투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고, 어려운 때 어려운 사명을 스스로 걸머지는것은 조선혁명가들의 특질이라고, 이러한 웅대한 목표들이 달성될 10년후에는 지방과 농촌이 말그대로 세기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진정으로 변하게 될것이며 우리 국가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질것이라고, 그날을 그려보면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고 그날을 그려보면서 오늘을 딛고 일어서자고 호소하시면서 지방중흥의 변천과정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중대한 행보로 될 거창한 계획들이 반드시 훌륭한 결실로 맺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은 마땅히 경공업공장건설에만 국한될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되여야 하며 그래야 진정으로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고 지방발전의 효률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선진적인 시, 군병원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량곡관리시설을 건설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제반 원칙들을 밝히시였다.

혁명령도의 천사만사를 오직 인민의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데로 지향시키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부단히 확대심화시켜나가는것을 본도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사명감과 원대한 리상, 완강한 실천력은 인민이 제일 바라고 반기는 변혁의 설계도들을 련이어 펼치며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장성을 강력히 견인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의 획기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중대조치를 당정책으로 책정하는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8월 31일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지도하시였다.

협의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해당 성원들과 도당책임비서들, 각 지방건설에 건설부대를 파견한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의 지휘관들, 설계부문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현시기 우리 혁명의 발전과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가는데서 더욱 필수불가결의 요구로 제기되는 시, 군보건시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량곡관리시설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시면서 우리 당의 지방발전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단순히 공장이나 건물 몇개를 세우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리념으로 하는 우리 국가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위업의 진리성과 불패성을 깊이 심어주고 굳건한 계승을 담보하는 중차대한 정치사업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년간 우리 당이 지역적거점인 시, 군들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에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할데 대한 정책을 내놓고 그 실행을 각방으로 힘있게 추진하고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국 지방인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롭게 추가부과된 3대건설과제는 우리당 지방건설정책과 과학기술중시정책, 인민적시책에 전적으로부합되며 전국의 균형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국가건설강령실현에서 필수적인것으로 하여 이를 시행함은 시급한 당면과업으로 제기된다고 하시면서 《지방발전 20×10 정책》실행을 위해 인민군부대들이 각 도와 시, 군들에 전개되여있고 전국가적인 자재공급체계, 지휘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된 현시점이 이 중대한 혁명사업을 개시하기에 최적기로 된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은 마땅히 경공업공장건설에만 국한될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되여야 하며 그래야 진정으로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고 지방발전의 효률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선진적인 시, 군병원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량곡관리시설을 건설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제반 원칙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보건실태를 개선하고 지방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시, 군병원건설은 자신의 제일가는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시설건설을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해년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이것은 우리 혁명과 시대가 당과 정부에게 부과하는 제1의 임무로 간주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문화보급거점도 통이 크게 훌륭하게 완공하여 지방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기술과 지식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며 종합적이고 일체화된 미곡처리시설들도 건설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하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과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지방발전정책집행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배가하여 새로 건설하는 대상들의 운영준비를 비롯하여 자기 몫을 명백히 찾아 실속있게 전개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진흥을 위한 필수3대건설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는 관건적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에 기초하여 조선인민군 각급 지방건설부대들의 력량을 증편하고 건설부문에 대한 중앙적인 정책지도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화된 실무적대책들이 토의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전개하는 이 거창한 사업들은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한 중대사항이며 100년후에도 지방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이 당중앙의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 우리 군대가 무거운 짐을 배가하여 떠멜수록 그만큼 지방변혁의 새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고 전국인민들의 복리가 더 증진될것이라고 확신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근 80년간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지방변혁의 대업을 10년혁명기간내에 수행하는 위대한 년대가 흐르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당의 지방발전정책의 요구에 맞게 전국이 변천되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새로운 모습을 반드시 펼쳐놓을 완강한 의지와 확고한 자신심을 지니고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진흥의 력사적위업이야말로 정말 고생은 커도 자부할만한 혁명사업이라고, 해가 바뀔때마다 20개 시, 군들에서 인민의 행복과 지방발전을 상징하는 새로운 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 온 나라가 천지개벽의 노래로 들끓을 때 우리는 과감한 투쟁과 분투를 각오하고 내짚은 오늘의 힘찬 보폭을 더욱 긍지높이 여기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위업의 신성함과 정의로움을 간곡히 새겨주고 우리 식의 발전관, 발전방식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강국의 국격과 국위에 맞게 전국을 전면적으로 급속히 진흥시킬수 있는 방도들이 명시된 귀중한 지침들은 협의회참가자들모두의 가슴마다에 숭고한 사명감과 분발력을 백배해주었다.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투쟁방향은 인민의 숙망을 풀어주고 행복넘친 미래를 안아오기 위한 만짐을 과감히 떠메는것을 혁명적당풍으로, 최대의 숙원으로 간주하는 조선로동당의 책임적인 선택, 보람넘친 혁명사업으로 된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복무정신과 가장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의 성스런 보무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투쟁에로 궐기시키시며 사회주의 문명부강의 새 전기를 힘있게 펼쳐가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며 열광의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31일 우리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전략을 실행하는데서 중책을 맡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조선인민군 각급 지휘관들과 함께 함경남도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현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시며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진척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지방진흥을 향한 전망목표의 첫 돌파구를 신심있게 열어나가며 성스러운 혁명사업의 성공적실행에 완강히 분투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의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의 첫해부터 전국의 20개 시, 군들에 일떠서는 산업시설들은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직접적표현의 실체들이며 이는 우리의 량심과 리상, 우리의 분발력과 투지 그 모든것이 그대로 비껴있는 축도이라고, 인민의 재부로 길이 남을 창조물에는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건설에서 기본은 질이며 속도일면에 치우쳐 질을 경시하는 요소는 그것이 사소한것

일지라도 우리 당의 지방건설정책에 저해를 주는 해독행위로 된다는 확고한 인식이 건설전역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질제고의 된바람을 일으키자면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기계로부터 건설자들이 휴대하는 각종 기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설장비들을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하는것이 선결조건이라고, 지방건설에서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취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들과 건설감독기관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 건설물의 평가를 질적지표에 엄격히 준하여 하는 기풍을 더욱 조장확대해나가야 할 필수성을 언급하시고 설계상요구, 공법상요구에 맞게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지침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의 범위가 부단히 넓어지고 지방건설의 전면적투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 어디보다 선행발전해야 할 부문은 설계부문이라고 하시면서 산업시설설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포괄적인 원칙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신 후 동행한 지도간부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정책관철의 성패여부는 전적으로 지도간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전면적국가부흥을 향한 혁명전구마다에서 견인기가 되여야 할 지도간부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 근절되지 못하고있는 무지향적인 경쟁에 대하여서도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건설부문에서 경쟁을 하나 조직하여도 그것이 사회주의문명개화를 착실히 추동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창조와 건설의 질적발전을 저해하는 속도위주의 경쟁은 혁명하는 우리 시대의 대중운동과는 무관하다고 하시면서 지방진흥의 력사적임무를 떠멘 군부대들에서는 부대내 관병들의 기능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다양한 기능경기나 기능공양성, 질제고, 환경정리와 같은 실리있고 의의있는 주제의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군대의 충실성과 전투력을 굳게 믿고 자력으로 열어나가는 지방변혁의 방대하고 성스러운 력사적공정을 위임했다고 하시면서 영예로운 건설대전에서 우리 군대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가 모든 면에서 완숙한 전위대오로 되기 위해서는 군인대중에게 인민을 위한 물질적부의 창조자, 문명한 새시대의 개척자라는 자각을 심어주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참신하게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민의 군대답게 현지인민들과 늘 고락을 같이하고 군민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그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혁명군대의 영상을 더욱 빛내이고 혁혁한 명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이 제시한 중장기적인 투쟁의 선봉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있는 군인들 한사람한사람은 더없이 귀중한 혁명전사들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군부의 지휘성원들이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다 원만한 작업조건,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을 갖추어주는 사업에도 각방의 진정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군대의 충실성과 전투력을 굳게 믿고 자력으로 열어나가는 지방변혁의 방대하고 성스러운 력사적공정을 위임했다고 하시면서 영예로운 건설대전에서 우리 군대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강군현대화위업의 확고한 승세를 과시하는 절대병기들의 출정식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 성대히 거행

혁명의 백년대계를 줄기찬 쾌승으로 이어가는데서 강위력한 지탱력, 추동력으로 되는 국가방위력의 무진한 발전과 강군현대화의 거대한 약진을 과시하며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식장에 나오시였다.

혁명의 백년대계를 줄기찬 쾌승으로 이어가는데서 강위력한 지탱력, 추동력으로 되는 국가방위력의 무진한 발전과 강군현대화의 거대한 약진을 과시하며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지난 8월 4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식장에 나오시자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념식에 앞서 우리 무력의 새로운 핵심적인 공격형무기로 취역하는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대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한개 국가에 있어서 경제건설이나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 자연재해복구 등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업이고 기본기능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큰물피해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을 진행하는것은 인민사수, 주권수호의 근본담보인 국방력강화를 어떤 환경속에서도 정체없이 밀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가 국가건설에서 견지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무적필승

있는 불변의 원칙적립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무력의 강세를 순간의 주저나 멈춤도 없이 최강으로 고도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과 구상을 혁명의 요구로, 삶의 본령으로 받아들이고 무한대한 혁명열과 투쟁의지, 철저하고 완벽한 창조정신과 본때로 받든 군수로동계급의 순결한 량심과 고결한 인생관이 응축된 첨단무장장비에 경의를 표하시였다.

기념식에는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국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부문 일군, 기술자, 로동자들, 평양시안의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 대련합부대장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가 군수생산과 관련한 특별명령을 관철하였다는 영광의 보고를 삼가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형전술탄도미싸일들을 국경제1선부대들에 장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과 전선대련합부대장들에게 하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미싸일병부대들의 군기와 군기증서들을 해당 부대들의 부대장, 정치위원, 참모장에게 직접 수여하시였다.

종합군악대의 군악례식이 있었다.

새로운 무장장비를 인도받은 전선미싸일병부대들의 시위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최강의 자위력을 억척으로 다지는 민족사적성업에 바쳐진 붉은 국방전사들의 애국의 넋이 력연하고 공화국무력의 군사적강세의 획기적제고성을 상징하는 절대병기들에 전투적경의를 표하시였다.

기념식이 끝나자 충성과 애국의 열정으로 충만된 《만세!》의 함성이 밤하늘을 진감하며 메아리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 대련합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다시금 신형무장장비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국호와 국기에 거대한 생명력을 부어주고 우리의 국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또 하나의 억척의 디딤돌인 최신예병기가 국권사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으로 위력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거행된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체계의 실전배치기념식은 위대한 당중앙의 백전필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철의 신념, 끝없이 강대하고 번영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배가해준 력사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새겨질것이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무인기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최근에 개발하고있는 무인기들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군사과학의 추세로 보나 전장들에서의 전투경험으로 보나 각이한 류형의 무인기들을 개발하고 그 전투적성능을 부단히 높이는것은 전쟁준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략정찰 및 다목적공격형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다를 끼고있는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수중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개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투적용시험을 더 강도높이 진행하여 하루빨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군사과학의 추세로 보나 전장들에서의 전투경험으로 보나 각이한 류형의 무인기들을 개발하고 그 전투적성능을 부단히 높이는것은 전쟁준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략정찰 및 다목적공격형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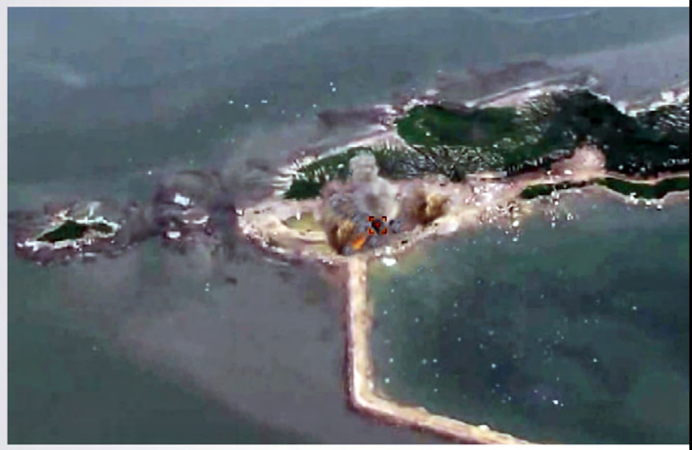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고있는 240㎜방사포 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27일 제2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고있는 240㎜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보시였다.

기동성과 타격집중성에서 기술갱신된 방사포무기체계는 이날 진행된 검수사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유도체계와 조종성, 파괴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립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무기생산과 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는 사업에서 견지할 중요방침을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와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동지가 참가하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큰물피해지역 수재민들을 구출하는데서 특출한 무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비행부대를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2일 공중구조전투의 기적을 창조한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비행부대를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나붓기는 부대의 정비장에는 침수지역 주민구출에 투입되였던 직승기들이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위대한 령장께 드리는 공군장병들의 최대의 경의와 영광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예의 조선인민군 공군군기와 부대군기에 전투적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공군의 주요지휘관들과 부대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모심을 안고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관철하는 긴박한 구조전투에서 인민공군의 명함을 혁혁한 군공으로 빛내인 미더운 전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성스러운 인민보위전에서 빛나는 무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비행부대에 대한 훈장수여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정적인 격려의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늘같은 우리 인민을 지켜내는 무비의 공적을 쌓은 직승비행부대 비행사들을 떠들썩 더 높이 자랑하고싶은 마음에 피해복구현장에서 돌아오는 길로 부대를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창식을 크게 하고 전군이 따라배우고 세상이 알게 하고자 하는것부터가 비행사들이 쌓은 공적의 높이이며 우리 당이, 우리 조국이 주는 평가의 높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압록강류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물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제일 컸던 신의주지구에서 인명피해가 한건도 나지 않은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으로밖에 표현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시의 매우 위험한 일기조건속에서도 위기앞에서 무한히 용감하고 련이은 임무수행에서 전문성과 완벽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훌륭한 전과를 이룩한 공군장병들의 무비의 전투력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웅적인 우리 군대의 무훈사에 또 하나 길이 전해갈 가장 값지고 영예로운 기록을 남겼다고 하시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구름속, 비줄기속을 날으며 하늘같은 인민을 지켜내고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믿음을 굳게 지켜준 공군장병모두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하시였다.

임무수행중 1대의 직승기가 구조지역에서 불시착륙한 사실이 있으나 비행사들이 모두 무사한것 역시 고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또한 구조전투에 투입되였던 해군 저격병려단과 국경경비대 해상경비편대, 정찰총국의 전투원들에게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직승비행부대의 비행사들이 이번에 전군이 따라배워야 할 군인의 본연의 자세와 준비된 부대라는것이 과연 어떤 부대인가 하는것을 판정을 위한 훈련장이 아닌 목숨을 내건 전투장에서 실전능력으로 증명해보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명령을 받들어 야간에 즉시 구조전투에 진입하여 악천후속을 뚫고 생소한 피해지역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주춤없이 전투행동을 펼치는것을 보면서 참다운 전형부대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후더워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령을 웨치기 전에 전위에 설줄 아는 부대장의 전투정신과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특별히 평가하시면서 우리 당은 현대전이 요구하는 이런 야전형, 실력가형, 행동형의 지휘관을 필요로 한다고, 그날도 정찰, 구조, 수색비행임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련속적인 반복임무를 힘든 내색없이 해내는것을 지켜보면서 깊이 감동되였다고, 단 몇시간안에 크지 않은 직승기들로 4 200여명을 구출한것, 수상구조임무를 수행한 기타 부대들이 세운 기록까지 합쳐 5 000여명을 구출한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이는 적기 10대, 100대를 격추한것보다 더 큰 성과로서 마땅히 영웅적이다, 기적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칭해야 할 불멸의 공훈이며 인민보위전이였다는 임무의 성격으로 하여 더 빛나고 길이 전해가야 할 찬양의 위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늘의 조화는 천변만화이고 그 아득한 만리대공에 리정표는 따로 없어도 우리 공군의 항로는 당과 혁명이 가리키는 오직 한길이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비행사들이 만리대공에 남기는 위훈의 비행운은 그토록 영예높은것이라고 지적하시고 부대의 비행사들과 전체 관병들이 지금까지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열렬한 애국충성과 영웅적인 전투정신으로 당의 위업을 억척같이 옹위하고 우리 국가의 령공주권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보위전에서 용감했고, 능숙했고, 주저없었던것처럼 훈련혁명을 다그쳐 원쑤를 격멸하는데서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언론들은 우리 피해지역의 인명피해가 1 000명 또는 1 500명이 넘을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임무수행중 여러대의 직승기들이 추락된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모략선전에 집착하는 서울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은 변할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자고 악랄한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쓰레기들의 상습적인 버릇과 추악한 본색을 신랄히 지탄하시였다.

우리는 재해복구나 인민생활을 위해 국방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것이며 국방을 위해 인민생활을 덜 관심하는 일도 없을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의 공군무력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인민공군은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것임을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은 우리의 하늘이라고, 여전

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피지역에 소개된 수재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루빨리 재해복구를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는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공산주의적 미풍이 온 나라에 차고넘치게 해야 하며 여기에서도 우리 군대가 인민의 아들딸다운 지극효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보위전에서 성스러운 무훈을 새긴 부대의 공적에 다시금 감사를 표하시면서 영웅적 인민공군의 앞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열렬히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훈장을 수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대군기에 영예의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손수 달아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직승비행부대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표창장이 47명의 비행사, 승무기사들에게 수여되였다.

부대를 대표하여 부대장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을 단 한명도 잃을수 없는 자신의 살점, 살붙이로 여기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희생적인 헌신이 쏟아지는 폭우, 휘몰아치는 강풍도 두려움없이 맞받아 나가는 불가항력의 추진력으로, 류례없는 공중구조전의 기적을 안아오게 한 전투력의 비결로 되였다고 하면서 영용한 공화국비행대의 붉은 매들은 앞으로도 최고사령관동지와 당중앙의 믿음을 생의 전부로 간직하고 0. 001㎜의 편차도 없는 충성과 보답의 항로만을 날을 엄숙한 맹세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보위전에서 혁혁한 위훈을 새긴 비행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군기와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과 뜻과 의지, 실천을 함께 한다는 긍지이상 더 큰 행복이 없다는 혁명관,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복무의 한마음으로 분투의 보무를 같이하는 견실한 공군장병들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중의 자랑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비행사들이 오늘의 영예를 더 눈부신 위훈으로 줄기차게 이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저녁 영예의 훈장을 수여받은 부대관병들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평안북도피해복구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 진행

평안북도피해복구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이 8월 6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호소에 충성과 애국의 실천으로 화답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나라의 서북부지대에 전개된 거창한 피해복구전역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청년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용원동지, 김재룡동지, 박태성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주창일동지, 김정순동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동지, 청년동맹일군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들을 격려하여 연설을 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의 부름과 기대에 불가항력의 투쟁으로 화답하여 자연의 대재앙이 휩쓴 험지에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의 별천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기어이 떠올림으로써 청년전위들의 노도의 애국기세와 영웅성, 고귀한 명예를 혁혁한 위훈으로 빛내일 철석의 의지에 넘쳐 우렁찬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대장 류철진, 속도전청년돌격대 려단장 승혁동무들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아버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랑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출정보고를 올리였다.

이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출정행진이 개시되였다.

출정대오마다에는 조선청년특유의 애국적열정과 견인불발의 의지, 무궁무진한 힘과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천해가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용솟음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대표하는 미덥고 장한 젊은 주력부대의 행진대오를 향해 오래도록 뜨겁게 손저어주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청년전위답게 영광스러운 조선청년운동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거창한 투쟁과 영웅적위훈의 페지를 당당히 아로새겨갈 청년사회주의건설자들의 격동적인 진군의 장엄한 서막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멸사복무정신을 위대한 천품으로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을 위한 불같은 사색과 진함없는 헌신과 로고를 깡그리 바치시며 위민헌신의 불멸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거룩한 자욱이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며 재난을 당한 인민들곁에 또다시 숭엄히 아로새겨졌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8일과 9일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전선을 펼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8일 또다시 의주군의 수재민들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수된 의주군의 섬지역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압록강대안의 둔덕에 오르시여 륜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침수지역의 실태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복구에서 나서는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피해복구를 단순히 자연재해가 몰아온 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원대한 지방발전강령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전망적으로, 발전적으로 확대추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폭우만 내리면 《저수지》로 변해버리는 이 지역의 고질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수능력을 결정

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압록강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따라 일방적으로 큰물피해를 입을수밖에 없게 되여있는 의주군의 현존강대안실태와 큰물방지능력을 수리공학부문과 설계부문이 협동하여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주군에 새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이번 기회에 도시 부럽지 않은 문명하고 현대적인 주택지구로 번듯하게 일떠세워 천지개벽을 안아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전기, 음료수보장과 오수처리에 이르기까지 도시경영과 관련한 제반 요소들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 리상적인《농촌문화도시》로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수재민들이 림시 거처하고있는 가설천막전개지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위로해주시였다.

찌는듯한 무더위를 헤치시고 자기들의 거처지에까지 찾아오신 원수님을 천만뜻밖에 뵈옵게 된 수재민들은 뜨거운 감격과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수재민들은 어제는 사납게 범람하는 물길을 달려 피해현장에 몸소 나오시여 오래도록 계시면서 사경에 처하였던 자기들 한명한명의 생명을 모두 구원해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자기들이 생활하고있는 천막에까지 찾아오시여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

를 눈물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불편한 점은 없는가, 식사는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앓는 사람은 없는가 따뜻이 물어주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헤아려주시였다.

수재민들은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으로 필수적인 생활조건들이 다 갖추어지고 온 나라가 떨쳐나 도와주니 불편한것이 하나도 없다고, 오직 원수님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할 일념뿐이라고 격동된 심정들을 아뢰이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객지생활이 왜 어렵지 않겠는가고, 조금만 참자고, 우리 이제 자연이 휩쓸고 간 페허우에 보란듯이 지상락원을 우뚝 세워놓고 잘살아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에 감사하다고,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피해복구는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구입해오신 당과류들을 아이들에게 먹여도 주시고 귀여운 옷들을 입혀도 보시면서 아이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강해야 하는가를 더욱 무겁게 새기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찌물쿠는 날씨에도 불편을 무릅쓰시고 수재민들과 오래도록 담화를 나누시며 손도 따뜻이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신심과 용기도 백배해주시는 친어버이의 뜨거운 정에 수재민들모두가 북받치는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원수님 품에 와락 안겨들며 환호를 올리는 격정의 바다, 눈물의 바다가 펼쳐졌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수재민들에게 어서 들어가라고, 다음날 또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9일 의주군의 수재민들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재해복구와 관련한 우리 당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시면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수재민들을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원물자를 자신의 전용렬차에 몸소 싣고 오시여 전달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도와 량강도안의 수재민들에게 보내시는 물자도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전달할것을 위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지원물자를 수재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원수님의 따스한 체취가 스민 지원물자들을 받아안은 의주군의 수재민들은 무한한 행복과 격정에 넘쳐 고마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옷을 입은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 귀속말도 나누시면서 친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가적인 집중력과 전인민적인 동원력으로 우리는 재해복구사업에서 확고한 승세를 틀어쥐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걸머진 시대적과제, 력사적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기 위하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도전도 기꺼이 맞받아나갈것이며 반드시 충실한 복무와 훌륭한 결과로써 인민들의 믿음에 보답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앞에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한번 현지에서 형편을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복구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재포치하며 수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국가적인 중대조치들을 추가로 강구하기 위해 왔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불편의 내색없는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정말 큰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은 당과 국가의 기초이고 기둥이며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고 지향점이라고, 엄혹한 재난의 시기에도 이처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당과 정부를 믿어주고있는데 대해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수재민생활도모와 피해복구를 위한 당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시고 중요조치실시에 대해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이 피해복구전투에 총집중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과

청년들을 비롯한 강력한 건설력량이 이미 전개되고 복구용물자수송이 비상체계에 따라 진행되고있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건설이 끝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의 두석달기간에 제일 걸린 문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문제이라고, 보육과 교양, 교육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제1의 국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복구기간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수재민가족들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말아 제공하는 비상체계를 가동시키며 로인들과 병약자들, 영예군인들과 어린애어머니들에게도 평양에서 국가적인 보호혜택을 제공해주려고 한다는 중대조치를 발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것만큼 철저히 본인들의 의향과 결심에 맡기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최중시하고 내세운것만큼 당과 정부에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평양에 올라오는 수재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 돌보아줄것이며 성심성의를 다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이 우리가 큰물피해를 입은 기회를 악용하여 우리 국가의 영상에 흙탕물을 칠해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하고있는데 대하여 까밝히시면서 적들이 조작해내는 날조자료들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략선전이고 엄중한 도발이며 피해없이 무고한 여러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시면서 적들을 가장 강력한 표현과 수사로써 지탄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따로 교양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런 생생한 사실자체가 적들이 얼마나 더러운 족속들이고 얼마나 아득한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날조와 정치적모략선전에 매달리고있으며 그 저의가 무엇이고 적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쓰레기라고 하는가에 대한 똑똑한 인식을 주는 좋은 교양소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우리앞에는 방대한 피해복구에 못지 않는, 그보다 더 심중하고 절실한 재해방지라는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상예보의 신속하고 정연한 통보체계를 세우고 재해위험요소들을 능동적으로 조절관리하며 특히 발전소와 언제를 관리하는 모든 단위들에 통합적인 물관리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인도주의적지원을 제공할 의향들을 전해오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우리가 국가사업의 모든 령역과 공정들에서 제일로 내세우는것은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과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문제처리방식이라고, 이번 피해복구에서도 당중앙과 정부는 첫째도 둘째도 열째도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와 용기, 우리 국가의 잠재력에 의지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가적인 집중력과 전인민적인 동원력으로 우리는 재해복구사업에서 확고한 승세를 틀어쥐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걸머진 시대적과제, 력사적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기 위하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도전도 기꺼이 맞받아나갈것이며 반드시 충실한 복무와 훌륭한 결과로써 인민들의 믿음에 보답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지역 주민들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숙소에 나오시여 수재민들을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억척으로 지키는것을 신성한 본도로, 절대불변의 존재방식으로 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자애의 손길은 자연의 대재앙으로 불행을 당하였던 남녀로소의 가슴마다에 제일먼저 따스히 스며들며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위민헌신의 전설을 끝없이 탄생시키고있다.

사랑하는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한몸에 떠안으시며 온넋과 혼신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서북변을 휩쓴 큰물속에서 수천의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천지개벽의 거창한 복구전선을 펼쳐주신데 이어 수재민들이 만시름을 잊고 수도 평양에서 국가적인 보호혜택을 받도록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비상방조제공조치가 강력히 실행되여 수도의 4.25려관과 열병훈련기지에는 수해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조건, 생활 및 휴식조건, 보양과 치료조건이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갖추어졌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렬차로 해당 지역을 출발한 어린이들과 학생, 년로자, 병약자, 영예군인, 어린애어머니들 1만 3 000여명이 8월 15일 평양에 도착하여 숙소에 입소하였다.

언제나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복무에 절대적이며 불같은 열애를 바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숨결과 정성이 력연히 깃든 숙소에 수재민가족들이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들어섰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숙소에 나오시여 여러 지역 수재민들과 상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열광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수재민들은 슬하의 천만자식들의 마음속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질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고도 오늘 또다시 친혈육을 반겨맞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숙소에까지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우러르며 감격의 환호성을 목청껏 터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정과 의리로 일체를 이룬 우리 국가특유의 참모습이 펼쳐진 구내는 격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사를 하시였다.

특별소식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믿고 따라준 여러 지역 수재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시고 평양에서 상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경연선과 북부내륙의 여러 피해지역들에서 불편하게 지내던 로인들과 애기어머니들, 영예군인들과 어린이들모두를 위한 성의있는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울인 당과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건강위주, 평안위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는 최상의 성의를 다할것임을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뜻밖의 자연재해로 국토의 일부분과 지역인민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난것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사회주의대가정은 아픔과 시련앞에서 더 굳게 뭉치고 고상한 정신으로 더 억세게 단결되였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재난을 지방개화의 분수령으로 바꾸려는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그 눈부신 전도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환해진 모습들로 개벽된 정든 고장에 들어설수 있게 4.25려관과 열병훈련기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줄것을 당부하시면서 모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경연선과 북부내륙의 여러 피해지역들에서 불편하게 지내던 로인들과 애기어머니들, 영예군인들과 어린이들모두를 위한 성의있는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울인 당과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건강위주, 평안위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는 최상의 성의를 다할것임을 확언하시였다.

가 어머니조국의 수도에서 마음놓고 편하게 지내면서 체류기간내내 인상깊고 의의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따뜻이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사를 마치시자 자애로운 품속에 인민을 정히 안으시고 오로지 인민을 위해 그 어떤 고행도 달게 여기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의 진정에 남녀로소 모두가 눈시울적시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한한 감격에 겨워 오열을 터뜨리는 수재민들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당과 국가의 각별한 관심과 중대조치에 의하여 꿈같은 특전을 누리게 된 수재민들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에 두볼을 적시며 전체 수해지역 주민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의 식사실을 찾으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스스럼없이 안겨드는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주시며 어서 밥도 잘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가정과 나라에 웃음꽃을 더해주는 기쁨동이, 행복동이가 되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두가 평양체류기간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를 다시금 기원하시였다.

국정의 천만사를 철두철미 인민을 위함에 지향복종시키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 삶의 주소를 정한 우리 인민은 자연의 광란이 아무리 사나워도 두려운것이 없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자자손손 무궁한 복락만을 누려갈것이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스스럼없이 안겨드는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주시며 어서 밥도 잘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가정과 나라에 웃음꽃을 더해주는 기쁨동이, 행복동이가 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25려관을 찾으시고 수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16일 4.25려관을 찾으시여 수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25려관에 도착하시여 수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새 학기 교수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소학반 학생들의 시범수업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의 구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수해지역 학생들이 리용하게 될 학용품도 보아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업에 열중하는 각 지방의 학생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당중앙위원회가 이번에 수해지역의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림시교육보장대책을 세우도록 신속정확한 결심을 실행한데 대하여 긍지스럽고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재해복구라는 환경하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교육부문과 전사회적으로 후대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바로 세워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려관내에 학생들을 위해 림시로 꾸린 초급반, 고급반 교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여기서 공부하게 될 학생들모두는 수해지역 인민들이 우리 당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맡긴 아이들인것만큼 그들이 학업에 전심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동행한 간부들과 나라의 교육발전과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밀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며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발전과 혁명의 전도가 좌우되는것으로 하여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교육사업은 당과 정부가 일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재삼 강조하시고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일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관내에 학생들을 위해 림시로 꾸린 초급반, 고급반 교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여기서 공부하게 될 학생들모두는 수해지역 인민들이 우리 당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맡긴 아이들인것만큼 그들이 학업에 전심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제고하며 교육사업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중대문제들을 당에서 토의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세워나갈것이라고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려관휴식터에 나오시여 새 교복과 학용품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수해지역 학생들을 만나주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손수 가방도 메워주시며 모두 새 교복을 차려입으니 정말 곱다고, 함께 올라온 어머니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하여 가정의 기쁨, 나라의 기쁨이 되여야 한다고 정담아 당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해복구기간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 시키면서 평양체류의 나날이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즐겁고 유쾌한 추억으로 남도록 다양한 체험일정들을 잘 조직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명랑한 모습을 보니 정말로 기쁘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야말로 전진하는 조국의 힘찬 숨결이고 약동하는 기상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의 상징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여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8월 15일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혁명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8.15는 우리 인민이 민족적자주독립을 이룩한 일대 경사이고 자주강국건설의 광활한 길을 열어놓은 거대한 정치적사변이였다고 하시면서 주체조선의 존위와 명성, 과감하고도 줄기찬 투쟁으로 자기 위업의 진리성을 립증해가는 강용한 위세도 이날에 새 기원을 두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개척세대가 지녔던 불굴의 신념과 숭고한 리념, 이룩한 업적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추호의 탈색을 모르고 무진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근본적이며 항구적인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혁명유산, 사상적피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백승사와 억년청청함을 담보하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후세토록 진함없이 순결하게 계승될 때 그 시원에 있어서 숭고하고 력사와 전통에 있어서 성스러운 우리의 위업은 그 무엇으로써도 멈춰세울수 없고 거스를수 없는 백절불굴의 힘을 터치며 무궁한 영광과 승리에로 노도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9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9돐에 즈음하여 8월 15일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해방탑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로씨야련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쏘련군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해방의 력사적성업실현에 고여진 쏘련군장병들의 위훈을 경건히 추억하시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과 중흥에서 근본적전환을 안아온 위대한 조국해방사에는 로씨야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불멸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있으며 붉은군대 장병들의 영웅적군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진정한 국제주의의 참된 귀감으로 소중히 간직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성전에서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전투적우의와 단결은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전횡과 패권을 짓부시기 위한 장구한 투쟁려정에서 자기의 불패성과 영원한 생명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80여성상에 이르는 훌륭한 력사와 전통, 혈연의 뉴대는 오늘 조로친선협조관계를 가장 공고한 전우관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로 승화시킨 근본초석으로, 두 나라의 강국건설과 다극화된 새 세계

창설을 추동하는 무진한 힘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국가간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어깨겯고 투쟁하는 조선과 로씨야 인민들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이 두 나라 선렬들의 고귀한 넋과 더불어, 전면적개화의 새시대와 더불어 굳건히 계승발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새 조국건설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건국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조선인민은 반만년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들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뜨겁게 돌이켜본다.

지금으로부터 76년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과거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우리 인민이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각광을 받는 주체의 나라로 되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이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일제에게 강점당한 조국을 해방할 결심을 품으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1932. 4. 25.)하신 그이께서는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일제와 맞서 10여년간이나 피어린 혈전을 벌리시였다.

마침내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군사적강점(1905년-1945년)을 끝장내고 새 조국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 주체37(1948)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내각수상으로 높이 추대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일찌기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의 정권을 세울 원대한 포부를 안고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무장투쟁을 벌리시던 초기에 유격근거지에 새형의 정권형태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심으로써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그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새 조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마침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성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히 자주적인 립장에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인민정권건설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해방된 조선은 어느 길로 갈것인가.

당시 세계적으로 보면 쏘련식민주주의가 아니면 미국식《민주주의》의 길로 나가는것이 추세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갈래의 정치세력들이 저마다 이런 주장들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견해는 다르시였다.

지난날 오래동안 봉건제도와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가혹한 학대와 착취를 받아온 우리 인민이였다.

현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다. 우리는 쏘련식민주주의도 아니고 미국식《민주주의》도 아니고 바로 조선의 실정에 맞는 진보적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진보적민주주의의 길, 바로 이것이 현하 조선혁명의 로선이며 정로이다. 진보적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을 가져다줄수 있으며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튼튼히 결속하여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달성할수 있다.

이것이 그이의 심중에서 내려진 결론이였다.

우리 나라의 건국로선은 이렇게 태여났다.

해방후의 복잡한 정세속에서 새 조국건설의 진로를 명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건국의 첫걸음에서부터 민족자주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37(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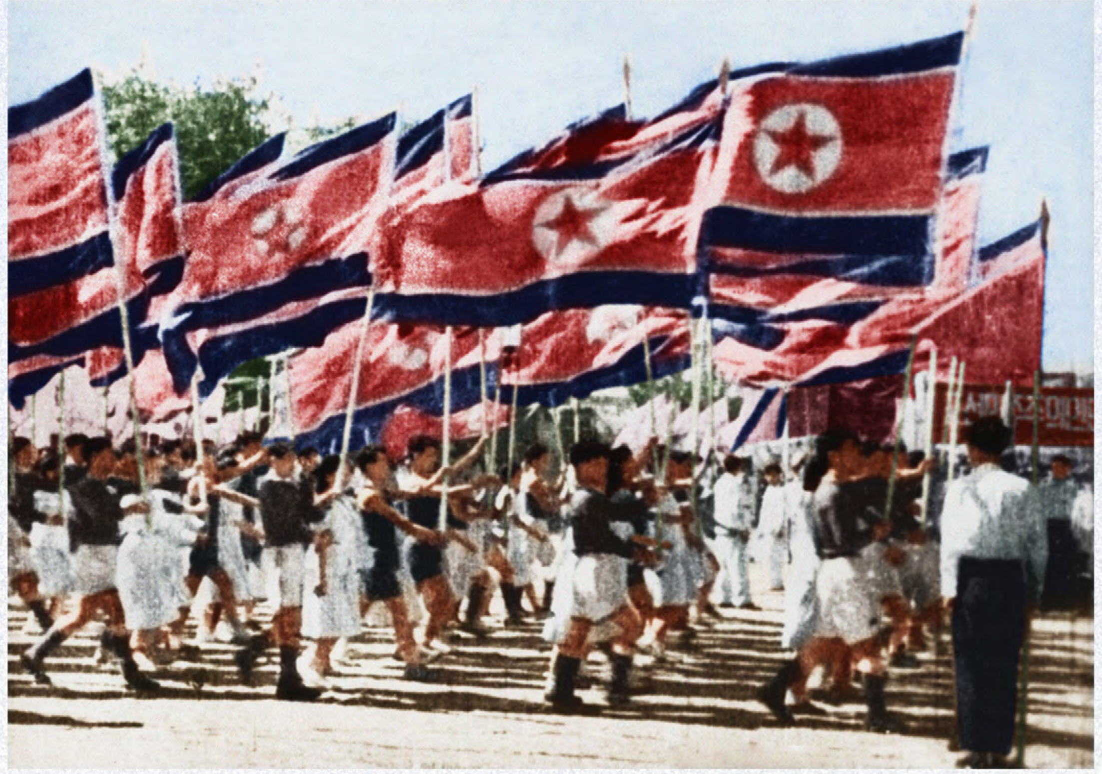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0대에 나라와 인민을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고 20대에 당시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던 강대한 일본제국주의와의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으며 30대에 조국해방을 이룩하신데 이어 새 나라를 일떠세우신 희세의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글 박경철

1948.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정권의 주인이 된 크나큰 긍지와 기쁨을 안겨주었다.

청년절 뜻깊게 경축

수도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서 청년절을 경축하는 공연들과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되였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랑만과 희열에 넘쳐 경축의 춤바다를 펼친 청년학생들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국가부흥의 새시대,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를 열어나가는 투쟁의 전렬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새세대들이 청년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건설장 등에 나가 청년들을 축하해주었다.

각 도, 시, 군소재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되여 청년절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청년절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무도회장들에서 경쾌하고 박력있는 노래선률에 맞추어 춤바다를 펼쳐가는 청년학생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은 당의 품속에서 훌륭히 자라난 수백만 청년대군이 있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이날 **김일성**종합대학, 함흥의학대학, 강계의학대학,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사리원학생교복공장, 원산구두공장 등의 청년들도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로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청춘의 희열과 랑만에 넘쳐 명절을 경축한 청년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위에서 애국청년의 위용과 기개를 더 높이 떨쳐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우리 나라의 천하절승 묘향산의 입구에 공장이 자리잡고있다.

공장은 주체109(2020)년 10월에 우리 나라 의료기구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 개건되였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경영활동의 과학화, 정보화가 실현된데 맞게 종업원들속에서 기술기능수준을 따라세우기 위한 노력이 증대됨으로써 제품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와 함께 품질이 철저히 담보된 성능높고 실용적인 의료기구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있다.

공장에서는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협력밑에 의료기구생산에 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과 국내 의료부문의 실정과 환자들의 체질에 맞게 제품설계를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내밀고있다.

그 과정에 생산능력을 수배나 장성시키였으며 의장품제작의 질을 담보하는 기술들이 도입되여 제품들의

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공장에서 개발생산되고있는 부인진찰대, 해산대, 수술대 등 여러 의료기구들은 해당한 용도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것으로 하여 의료일군들모두가 평가하고있다.

치과종합치료기, 이비인후과종합치료기를 비롯하여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의료기구들이 지난해 진행된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23에 출품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나라의 의료기구공업발전을 선도해가는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선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은 보건실천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사진 리영철, 방은심
글 김선경

치과종합치료기
Dental Unit

기술적특성

- 저속손기구회전속도 20 000r/min
- 고속손기구회전속도 200 000r/min
- 환자의자최대하중 140㎏
- 환자의자높이조절범위 450㎜-750㎜
- 등받이경사각도 110°-175°
- 사용공기압력 0.2㎫-0.7㎫
- 사용전원 220V, 50~60㎐, 500W

친선과 우정으로 이어진 야영의 나날들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

얼마전 조선의 유명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는 로씨야와 조선학생소년들의 야영이 진행되였다.

조로학생소년들이 서로 어울리며 즐겁고 유쾌하게 보낸 야영의 나날들은 친선과 우정으로 차넘쳤다.

지난 7월 우리 나라 학생소년들과 로씨야학생소년들이 동해의 명승 송도원에 훌륭히 꾸려진 아이들의 멋쟁이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기쁨과 즐거움속에 야영의 나날을 보내였다.

야영기간 해수욕장과 물놀이장들, 운동장을 비롯한 야영소의 곳곳에는 두 나라 학생소년들의 희열과 랑만이 차넘치였다.

희귀한 바다동물들이 보금자리를 정한 수족관과 조류사 등에서 그들은 황홀한 바다세계와 풍부한 자연의 정취를 체험하며 보다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였다.

두 나라 학생소년들은 서로의 마음과 정,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 친선의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잊지 못할 야영의 나날을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였다.

조로소년친선야영은 두 나라 학생소년들의 우정과 친선의 정을 보다 두터이 한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naenara.com.kp www.minzu.rep.kp www.youth.rep.kp www.korean-books.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mfa.gov.kp www.kiyctc.com.kp www.friend.com.kp www.mirae.aca.kp www.korfilm.com.kp www.cooks.org.kp
www.korelcfund.org.kp www.tourismdprk.gov.kp www.ma.gov.kp www.sdprk.org.kp www.fia.law.kp www.manmulsang.com.kp www.koredufund.org.kp www.korstamp.com.kp www.mediaryu-gyong.com.kp www.gpsh.edu.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ryomyong.edu.kp www.knic.com.kp

ㄱ-24088020800

© 조선화보사 2024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